

2011 년 3 월 18 일

고객 여러분께

미키플리 주식회사
영업본부장 미키 코지

동북지방 태평양바다 지진에 의한 폐사운영 상황에 대해서

인사말

이번 동북지방 태평양 바다 지진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삼가문안드립니다. 신속한 복구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 월 18 일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의 안내 말씀드립니다.

폐사에 있어서는 지진에 의한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회사전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생산라인의 피해는 없으며, 물류·전력사정의 혼란도 대체로 해소되어가고 있고, 이미 주신 주문에 대해서도 확실한 납기회답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소의 혼란은 예상되지만, 고객님에 불편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안부인사

기

【생산상황】

- 당사 생산라인에 피해는 없습니다.
- 생산인원은 확보했으며, 생산능력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구매상황】

- 일부 구매처님에 피해가 발생해서 타사로부터의 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커플링, 브레이크도 당면 필요한 재고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류상황】

- 사가미(相模)기술센터의 물류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에 따라서는 통상납기에 더해 1~2 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